

월요논단



김동운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넘치는 가파도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청보리밭에 누워 눈을 감으면/ 어린 시절 떠올라 눈물이 나지/ 하동포구에 바람이 자고, 파도 넘어/ 한라산에 노을이 들면/ 바다로 나간 정든 얼굴들/ 올레길 따라 돌아오겠지/ (...) / 휘돌아치는 거친 파도는/ 수평선이 가만가만 다독여주고/ 밤이 내리면 별들이 모여/ 우리들의 노래에 귀 기울이지/ (...) / 청보리밭에 누워 하늘을 보면/ 나뭇아 구름 따라 흘러간다네”

파도도 무척 아름답다. 사실 나는 두 번 가파도를 가 봤는데, 아직 섬의 청보리는 못 봤다. 첫 방문은 11월 당일 치기였고, 두 번째 방문은 여름철 1박 2일의 답사였기 때문이다. 청보리를 못 만났어도 가파도는 참 좋았다. 올레길 10-1코스뿐만 아니라 섬의 들만과 바닷가 어디든 거닐다보면 사방팔방으로 탁 트인 별천지에 떠다니는 기분이 든다. 맛있는 음식점도 적잖이 있고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정겹다. 송악산, 산방산, 한라산이 접점이 보이는 제주도의 모습은 압권의 장관이다. 그런데 요즘 가파도가 폼살을 잃는다는 보도를 자주 접해 안타깝다. 관광객이 너무 몰려 힘들다는 것이다. 4월 말엔 관광객 증가로 ‘가파도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서 오수가 넘쳐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 시설은 하수를 처리해 바다로 흘러보내는 기능을 하는데, 그 이용량

이 급증하자 정화되지 않은 1차 펌프장의 하수가 용량을 못 견뎌 2차 펌프장으로 보내지기 전에 넘쳐버렸다는 것이다. 관광객이 하루 2000명 가까이 찾아오는 날이 이어지면서 수용 능력을 초과해버린 결과다. 게다가 주민들은 코로나19가 관광객을 통해 섬에 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보다 앞서 3월에는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가 방치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가파도는 2012년까지는 마을 내 소각장에서 일부 쓰레기를 처리하기도 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소 없는 섬 2030’ 사업을 실시한 이후 소각장을 철거하고 대정읍사무소에서 바지선으로 쓰레기를 수거해 간다. 하지만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각종 쓰레기들이 뒤엉킨 채로 며칠씩 방치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파도 주민 217명만 대상으

로 한다면 거의 발생하지 않을 문제들이다. 공공하수 시설의 처리 규모는 하루 120t이어서 주민들의 하수 처리에는 충분하다. 쓰레기의 경우도 주민들만의 것이라면 문제가 안 된다. 감염병 걱정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주민의 10배에 가까운 관광객이 몰려드는 날까지 있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파도의 상황은 제주도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관광객이 많이 찾아온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님을 입증한다. 주민 삶의 안정성을 우선하면서 기반시설이 친환경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선부터 관광팽창은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성급히 가르느 꼴에 다를 아니다. 제2공항 건설로 관광객을 더 끌어들이려는 발상은 그만큼 위험하기 짝이 없다. 현재 수준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질 높은 주민의 삶과 관광정책을 도모해야 마땅하다.

사설

제주시설공단 설립 계획 완전히 접어야

원희룡 제주도정 들어 유독 공기업 설립에 혈안이다. 제주해운항 만류류공사에 이어 제주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했다. 물론 행정이 공기업을 만들려는 목적은 나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공기업 설립에 따른 비용이 만만찮다는데 있다. 민선7기 제주도정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추진한 제주시설공단도 마찬가지다.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밀어붙이다 결국 중단하게 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된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올린 뒤 다시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설공단 설립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주도는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 하수도, 환경시설 등 4개분야 사업을 위탁할 제주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조적은 이사장·3본부·1실·15팀이며 인력은 총 1105명이다. 지난

2019년 지방공기업평가단에 의뢰한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는 지방재정이 절감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도의회가 시설공단 설립에 제동을 건 이유는 다르게 아니다. 바로 제주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이다. 시설공단을 설립할 경우 제주도의 재정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높았다. 용역대로라면 시설공단의 인력은 1100명이 넘는다. 제주도 전체 공무원의 17%에 달하는 규모다. 그렇다고 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기존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다. 고작 제시한 것이 라곤 자원감소분이 전부다. 이런 계획을 계획이라고 내놓고 거대 공룡조직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오죽하면 제주도공무원 노조가 시설공단은 앞으로 도민들에게 엄청난 세금 부담이 될 것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시설공단 설립은 마땅히 접는게 맞다고 본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두고만 볼 건가

국내 민간아파트 분양시장이 투기세력에 의한 ‘시장 교란행위’로 얼룩지고 있다. 주로 외국인들 투기수요로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데 이어 청약 당첨자도 실수요자 아닌 가수요층인데다 웃돈을 얹어 거래된 사실들이 나온 것이다. 제주가 부동산 비규제지역인데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없는 현실 탓이다. 실수요자 청약기회를 박탈하고, 웃돈을 더한 분양권 전매 등 부정적 요인들이 상당하다. 최근 한라일보 확인결과 청약 당첨자중 계약을 한 e편한세상 연동 센트럴파크 2개단지 204세대중 21세대 분양권 전매가 이뤄졌다. 거래금액은 1단지 전용 84㎡ 9억2430만~10억2030만원, 2단지 84㎡ 9억930만~10억830만원이었다. 분양가를 감안할 때 최고층(15층)의 경우 8000만~1억 원, 평균 2000만~3000만원 프리미엄이었다는 얘기가. 지난 4월 계약을 한 연동 한일배라체 더 퍼

스트도 17세대 전매사실이 확인됐다. 여기도 최저 1000만원, 최고 5000만원 웃돈이 붙었다. 민간아파트 전매가 불법은 아니지만 84㎡ 기준 9억원대 분양가에 웃돈을 더해 10억원대 거래현실에 크게 우려된다. 당장 외부 투기세력에 의한 가격폭등 유발로 전체 아파트시장 가격상승을 불러오고, 가수요자들에 의한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뺏는 결과를 낳는다. 도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막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지정과 전매제한 권한 이양 문제가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제주진전됐다. 거래금액은 1단지 전용 84㎡ 9억2430만~10억2030만원, 2단지 84㎡ 9억930만~10억830만원이었다. 분양가를 감안할 때 최고층(15층)의 경우 8000만~1억 원, 평균 2000만~3000만원 프리미엄이었다는 얘기가. 지난 4월 계약을 한 연동 한일배라체 더 퍼

열린마당

환경 보호 꿀팁 ‘읽지 않은 메일 비우기’



이은주 서귀포시 표현면사무소 주민복지팀장

주변이 되는 것이다. 세계 23억명의 인구가 50개의 안 읽은 메일을 비우면 862만5000GB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삭제되고, 그걸 전기의 양으로 환산하면 2억7600만kWh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마치 1시간 동안 27억개의 전구를 끄는 것과 같은 에너지 절약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한다. 사실 읽지 않은 메일이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지 몰랐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본 후, 평소 들어가지 않은 메일함에 열어봤더니 무려 안 읽은 메일이 1000개가 넘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의 메일이라 조금 삭제하느라 시간은 걸렸지만, 간단한 방법으로 환경보호에 보탬이 될 수 있구나 무척이나 뿌듯했다. 앞으로는 작지만 사소한 나의 행동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을 해보고 나와 나의 아이를 위해 좀 더 지구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혹시 메일함의 안 읽은 메일이 빠져 있는지 확인해보고 비워내 환경보호를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

이은주 서귀포시 표현면사무소 주민복지팀장

지난 10년간 지구의 평균 온도는 0.4℃가 상승했다. 만약 평균 온도가 2℃ 상승하면 부산은 반도가 되고, 낙동강은 바다의 일부가 되고, 인천국제공항은 침수가 될 것이다. 아마도 30년 후에는 말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조금씩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준다면 지구의 시간을 돌릴 방법이 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읽지 않은 메일을 삭제하는 것이다. 읽지 않은 메일을 보관만 하고 있어도 데이터센터에서는 엄청난 전기를 소모된다. 게다가 이때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장치를 사용해서 전기를 계속 생산해 내고 있는데, 이렇게 쌓여있는 메일이 온실가스의

뉴스-in

“공공기관 수놓음 일손 도와 어려움 극복”

고영권 부지사 농촌 봉사활동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농촌지원단 등 20여명이 지난 21일 구좌읍 마늘 수확 농가에서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실시.

도는 농번기 때 집중되는 노동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영농지원을 위한 수놓음 운동을 전개하는 등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취약농가를 상대로 일손 돕기를 추진.

고 부지사는 “공공기관부터 수놓음 일손 돕기에 동참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며 “재소가격안정제와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마늘 수급·가격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이상민기자

제주시체육회 법인화 속도

○...지방체육회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지방체육회의 특수법인화 추진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제주시체육회의 법인화 절차 이행에 속도.

제주시는 지난 1월 준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법인설립 추진위원회 정관 제정에 이어 이달 10일 창립총회를 거쳐 현재는 제주도의 인가를 기다리는 상황.

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법정 법인화 절차를 마무리, 법적 지위 확보 등 제주시 체육분야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

이윤형기자

“정서위기·비만학생 늘어”

○...코로나19와 원격수업 장기화 여파로 일부 학교에서 정서위기와 비만학생이 증가하고 있어 관심 요구.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이석근 교육감과 제주시 동지역 학교장들과의 ‘생생토크’에서 박경숙 노형중 교장은 “작년에 비해 정서위기 학생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정서·심리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

양창홍 제주서중 교장은 “비만 학생이 많이 늘었다”면서 출납기 활동을 강화하고 2학기에는 건강체력교실을 주2회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

오은지기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 고

부영진(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어머니 김해김씨 춘자(마리아·향년 96세)께서 서기 2021년 5월 22일 15시 24분경에 노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1년 5월 24일(월요일)
▶ 발인일시: 2021년 5월 25일(화요일) 오전 7시 30분
▶ 발인장소: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2분향실
▶ 장 지: 양지공원→돈네코 선영

아 들 부승현 며느리 김영자
이성철 조명옥
부준현 흥행림
부영철 윤용식
부영진 박연주
딸 부영순 사 위 조원영

※ 연락처 : 부영진 010-7670-9901
부승현 010-5693-6735
부준현 010-2566-9900

부 고

강원국(前 공무원, 前 대한의사협회 사무총장) 부인 남평문씨 정숙(향년 68세)께서 2021년 5월 22일 별세 하셨습니다.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1년 5월 25일(화요일)
▶ 빈 소: 부민장례식장 3분향실
▶ 장례미사: 2021년 5월 26일(수요일) 오전 9시 30분 화북성당
▶ 장 지: 한림읍 금악리 선영

남 편 강원국
아 들 강성현 며느리 유진아
딸 강수연 사 위 김명철
강수경 윤승욱

※ 분향소 준비관제로 일포날 25일(화)부터 조문 받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제주고씨 혜정(향년 59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5월 24일

남 편 부 영 기
아 들 부 상 혁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전주이공 성직(향년 69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5월 24일

부 인 이연자
아 들 이수영 며느리 이민정
태 권 고은순
영 권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군위오공 명립(향년 92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5월 24일

아 들 오태휴 며느리 최미영
태하 태경 현정영
딸 오태매 사 위 문도현
춘매 윤매 김성훈
매숙 영매 허법률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빙의·신들림

증세로 고생하시는 분

상담환영

◆ 전화·대면상담 무료
◆ 빙의천도 최고전문가

영가천도, 빙의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시 삼무로 47 3층(연동)

064) 746-0789